

道, 대불산단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건의

조선업 장기침체 고용 불안·휴폐업 속출 고용노동부에 기준완화·지표 신설 요청

전남도가 조선업 장기 침체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대해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정을 위해 기준 완화도 요청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불산단 내 조선기업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지난 18일 정부에 영암군이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요청했으

며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 완화와 신규지표 신설 등 '고용촉진특별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대불산단은 지난 2004년 전남도가 조선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뒤 300여 관련업체가 입주했다. 3만여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는 등 전남 서남권 경

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 관련 입주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불량 부족과 단가 하락으로 경영난 악화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고용 불안과 휴폐업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일보 2월1일자 8면>

실제로 대불산단에서 가장 규모가 큰 A조선의 경우 지난해 수주물량이 16척(40만1000t)에 그쳐, 2011년(37척·87만4000t) 대비 57%나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6.6으로 전년 같은 기간(71)과 비교하면 20.3%나 줄었다. 협력업체들의 비자발 이직자

수도 2011년 연평균 458.2명, 2012년 401.1명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1월엔 1107명으로 세 배 가까이 올라갔다.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기준엔 경기 지표 등이 못 미치고 있다고 전남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준완화 건의는 ▲BSI 기준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전년 동기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할 것 → 100분의 20이상 감소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비자발 이직자 수를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로 나눈 값이 100분의 3 이상일 것 → 100분의 2 이상 등 다소 현실적인 지표를 반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선업 특성상 노동시장의 실물경기가 고용지표에 직접 반영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해당 업종 매출액 및 수출액 감소와 최근 휴·폐업 증가 및 공장 가동률, 4대 보험 체납실태 등 별도의 실물경기 지표가 관련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수도권(경기 평택), 동남권(경남 통영) 지역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감안,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권 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기전매장에서 고객들이 대형 스마트 TV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혼수, 필요한 건 아낌없이

롯데백화점 구매조사... '가치소비' 트렌드로 전년보다 품목 16개 줄었지만 지출금액 같아

혼수시장이 다가오면서 혼수를 간소화하는 대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가치소비'가 혼수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웨딩센터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혼수 구매 패턴을 조사한 결과 올해 평균 혼수 품목수는 약 80개로 지난해(약 96개) 보다 약 16개 품목이 줄었지만 평균 혼수비용(여성기준)은 2600만원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혼수 품목을 줄였어도 꼭 필요한 예물 등 혼수품에 대해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치소비'가 확산하면서 혼수시장에서도 '뜨는 상품군'과 '지는 상품군'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뜨는 상품군'으로는 55인치 스마트 TV, 834L 대용량 냉장고 등 이른바 사치 품목으로 여겨졌던 대형가전으로 매출이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셀

프가전'도 '뜨는 상품군'군이다. 캡슐커피, 원액기 등 집에서 직접 조리할 수 있는 셀프형 가전이 불황 속 절약형 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가구는 '지는 상품군'으로 꼽혔다. 가구를 풀 세트로 장만하기보다는 필요한 침대나 소파 등 필요한 가구만 단품으로 구매하다 보니 장롱, 식탁, 거실장, 서랍장 등은 잘 안 팔린다는 것이다.

최근 신혼 예비 부부들이 가구가 구비된 빌트인 스타일의 신혼집을 선호해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김대호 가정팀장은 "요즘 예비부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적합한 혼수·예물 만족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실용성과 경제성을 따지며 필요한 물품을 중심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마음은 '봄'
19일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유신영) 2층 스킨케어 매장서 여성고객이 봄 분위기가 느껴지는 화사한 스킨케어를 살펴보고 있다. 올 봄에는 연하 비비드 컬러 계열의 핑크와 그린, 오렌지 색상이 유행할 것이라고 백화점측은 전망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은행도 부가혜택 대거 축소

포인트 적립·할인 50% ↓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자 카드사들이 시중은행마저 부가 혜택을 대거 줄이고 있다.

금융사 고객들은 이제 지갑 속 카드뿐 아니라 장롱에 고이 간직해둔 통장의 혜택까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상황을 맞게 됐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올해 들어 고객 대상 부가 혜택을 줄였거나 조만간 축소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

하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 등을 기존보다 50% 이상 줄였다.

은행들의 부가 서비스 축소 규모는 카드사만큼 크지 않지만, 그동안 부가 혜택에 좀처럼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른 수건 짜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씨티은행은 내달 15일부터 '라이프 플랜 저축', '로얄 고수의 부금', '웰빙 예금'의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부가 서비스를 중단한다. '라이프 플랜 저축'은 상해보험 무료 가입, '로얄 고수의 부금'은 마일리지 적립이 사라진다.

'라이프 플랜 저축'은 저축액이 200

만원 이상이고 가입 고객이 만 19세 미만이면 자녀안심보험, 19세 이상 성인이면 상해보험을 들어줬다. 보험 기간 만료 때 1년 단위로 갱신해 최고 3년간 보험혜택을 부여했다.

'로얄 고수의 부금'은 만기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예금을 거치하면 35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줬다. '웰빙예금'은 상해보험 무료 가입과 웰빙 서비스가 중지된다. 웰빙 서비스는 건강검진 예약 및 검진료 할인, 신차 구매 시 할인, 전국 콘도 예약 및 할인, 항공권 예약 및 할인 등이었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부터 '우리아파트뱅크 사이트' 서비스를 중지한다.

/연환뉴스

한진섭 11대 광주농협 조합장 취임

“조합원 복지·이익 극대화 돈버는 광주농협 만들 것”

한진섭(60) 11대 광주농협 조합장(사진)이 19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광주농협 회의실에서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한 조합장은 취임사에서 “농협의 존재 이유는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이익 극대화”라며 “앞으로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 조합장은 복지사업 및 영농자재 지원을 늘리고 의료지원 사업 확대와 농수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개설, 선도농가 육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한 조합장은 “하나로마트 사업 개선, 한우백화점 추진 등 돈버는 경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판매농협을



실현하고 투명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사업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청렴한 광주농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조합장은 ‘봉사하는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조합장 연봉을 삭감하고 전용 승용차도 없었다.

순천 출신인 한 조합장은 숭실대학교(현 송원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73년 농협에 입사해 광주농협 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카드 발급 1인당 4.5장

경기 침체와 카드 규제 강화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물건 등을 살 때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은 65%에 달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이 지난해 3분기까지 발급한 신용카드는 1억1712만장으로 경제활동인구 2576만명의 4.5배다.

경제활동인구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려고 노동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이다. 취업자 또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1인당 4.5장의 신용카드를 가진 셈이다. 2011년과 비교하면 0.4장이나 줄었다. /연환뉴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파워리버캡!

!그린알로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그린파워리버캡 출시!

그린파워리버캡은 100% 천연식물 밀크씨슬에서 추출한 실리마린 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간 건강지표를 나타내는 효소인 GOT, GPT 수치개선에 도움을 주며, 천연원료 비타민, 미네랄(11종)이 에너지 대사 활성을 도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헛개나무열매 추출물, 민들레 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 추출물, 운지버섯다실체 추출물, 울금 추출물, 효모추출물(글루타치온) 등 부원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1%유지도 함유하지 않은 정제형 복합기능성 제품입니다.

섭취대상자

-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간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
- 잦은 회식과 야근에 늘 지쳐있으신 분!
- 업무량이 많아 피로하신 분!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그린알로에 제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상담실 080-234-6588